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2년 10월 후원미사는 17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2022년 7~8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6,577,129		
구 분	2022년 7월		2022년 8월	
자 동 이 체	715명	19,432,220	642명	10,534,779
지 로	36명	931,630	89명	805,480
CMS이체	196명	2,426,700	197명	2,446,320
합 계	947명	12,790,550	928명	13,786,579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4,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2,45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1,0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4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1,600,000	제전비, 여름가족캠프비
	인도네시아공동체	2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1,0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21,250,000	
시설비	노동사목회관	3,0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2,327,129	출판비, 우편비 등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26,577,129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2022. 09 / 제65호

펴낸날 2022. 09. 19.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신부님 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아름다움

9월 마지막 주일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미래 건설하기'라는 제목으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그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변방에 있는 이들(이주민, 난민, 실항민 그리고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서 귀찮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상은 우리들을 지탱하고, 활력을 줍니다.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가진 다양성은 교회와 사회 안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비로움을 전합니다. 교황님은 "그들이 저마다 하느님 나라의 건설 과정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깨닫고 이를 귀하게 여겨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다양성은 많은 갈등을 통해 어려움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갈등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일치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함께 건설하기'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극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극단에 머물러 있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들의 처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함께 건설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함께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도성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양극화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홀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 이슈들로 또 이용되겠지만, 우리는 현혹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오늘입니다. 앞으로 이주민과 난민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그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를 준다면, 우리 사회 안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형제자매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게 하소서.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세례자요한 신부

공동체 소식

쉼터 및 국가별 공동체 캠프 소식*

쉼터와 국가 공동체는 2년 만에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단체로 야외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뜻깊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가기 전까지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 많이 초조했지만 확산세가 조금 꺾이며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함께 하는 활동으로 그동안의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으나 모두 좋은 추억을 쌓고 내년을 기약하며 기쁘게 다녀왔습니다. 준비에 도움을 주시고 항상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필리핀공동체〉



〈남미공동체〉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소식*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주교들에게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사회의 변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은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연대하여 '길을 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동행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7시 명동성당에서 봉헌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9일은 이주사목위원회의 주관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강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전방지책들이 잘 마련되어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는 일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후원분들의 관심과 기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9월 29일 19시, 장소 : 명동대성당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지진대피훈련〉



〈국민대 동그라미 동아리 학생들과 24시간 어린이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소식*



9월 25일은 제108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와 더불어 9월 마지막 주일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정하고 이주민과 난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제108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황 담화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건설해야 할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도록 권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17,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화심한 이들 안에서 발견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며 그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다양한 이유로 낯선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잠시나마 돌아보며 기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사목위원회에서는 이날(9월 25일)을 맞이하여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미래 건설하기'를 주제로 국가별 공동체의 많은 이주민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홍보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더불어 이주여성들이 모여(알록달록 협동조합) 만든 재봉 제품들도 전시·판매합니다. 시간 되시는 후원분들이 함께해주시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못하시는 분들께도 기도 요청드리며 항상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주민(migrant)과 난민(refugee)

난민과 이주민은 모두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고향을 떠나는 동기가 다릅니다.

1. 이주민이란? 이주를 통해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일자리를 찾아 삶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교육, 가족 재결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주를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 기근, 극심한 빈곤 등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이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사람다운 삶을 바라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극심한 가난과 역경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착취와 구금, 사망의 위험에 속수무책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출신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떠날 수밖에 없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추방 혹은 송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 받을 권리,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비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비호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 유엔난민기구